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북한 관계

지해범

▶ 첫번째 질문: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어떻게 대응했나?

- 북한 핵실험 이전, 북중 관계의 세 얼굴과 북한 핵개발을 보는 중국 지도부의 시각
- 북한 1차 핵실험과 중국-북한 관계: “북 핵실험에 가장 분노한 나라는 미국 아닌 중국”
- 중국의 ‘북핵 딜레마’와 북중동맹 해체론
- 북한 2차 핵실험과 중국-북한 관계
- 시진핑 시대의 중국-북한 관계

▶ 두번째 질문: 중국의 대북 경험(經協)은 北中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나?

- 북한의 ‘핵-경제 딜레마’와 중국의 새로운 기회
- 중국의 동북 경제개발계획과 대북 전략
- 중국의 대북 경험의 특징과 정치적 함의
- 북중 경험 70년, 북한 경제는 자생력을 갖추었나?

▶ 세번째 질문: 중국은 진정으로 ‘북한 비핵화’를 원할까?

-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할까?
- 중국의 ‘북한 비핵화’ 주장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나?
- 북한은 중국의 비핵화 압력에 굴복할까?
- 미중관계와 북중관계

지해범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자 ‘아시아브리프’ 객원 편집위원이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석사, 한양대 국제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육군 복무를 마치고 1986년 조선일보에 입사, 사회부-월간조선부-경제부-국제부 기사를 거쳐, 베이징특파원, 국제부장, 논설위원, 동북아연구소장을 역임했다. 박사 학위 논문은 “후진타오-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연구—비핵화와 경제협력 정책을 중심으로”이다. 주요 저서로는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루나(2020)』, 『제국의 황혼(2011)』, 『원자바오(2007)』, 『화교 네트워크(1998)』 등이 있다. 에세이로는 “정층설계(頂層設計)와 기층창신(基層創新)”(성균차이나브리프, 2016.3.1) “중국 관영매체의 한국 때리기”(성균차이나브리프, 2016.4.1) 등이 있고, 조선일보와 주간조선에 많은 칼럼과 중국 분석 기사를 발표했다. 주 연구 분야는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략이다.

Date & Time: October 18, 12:00-13:00

Place: SNUAC Asia Square (3rd Floor)